

# 수비형 포수 'KIA 안방' 차지할까

# 이틀 연속 홈런...정호, 시크해!

**한승택 파란만장 1군 등주기**  
 한화서 이적 후 군복무  
 2년만에 KIA 유니폼  
 교육리그서 얼굴에 공 맞고  
 스프링캠프 대신 병원 신세  
 지난달 29일 1군 등록  
 "기다린 무대...즐길 여유없다  
 투수 파악 위해 매일 공부"



돌고도는 KIA 타이거즈의 '안방'. 이번에는 공격형 이흥구와 수비형 한승택의 조합이다.  
 KIA의 불모지로 꼽혔던 안방은 지난해 이흥구와 백용환의 한방 있는 활약 속에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 개막전부터 포수 전쟁이 시작됐다. KIA는 개막 엔트리에 이성우, 백용환, 이흥구 세 명의 포수를 배치했다. 1라운드의 승자는 이성우였다. 이성우가 주축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사이 이흥구와 백용환이 지난 시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자리 다툼이 시작됐다. 이흥구가 먼저 2군에 다녀왔고, 이후 10일 지난 뒤 백용환이 자리를 내줬다. 그리고 다시 10일을 채운 백용환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흥구가 돌아왔다.  
 여기에 이성우의 하락세 속에 한승택이 지난 5월 29일 이적 후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형' 이흥구와 '수비형' 한승택이라는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졌다.  
 한승택에게는 돌고 돌아 겨우 찾아온 자리다. 2013년 한화에 입단했던 그는 프로 첫 시즌을 보내고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했다. 그는 이흥구의 FA(자유계약) 보상선수로 KIA의 선수를 받았지만 2년의 군복무가 끝난 뒤에야 KIA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군 제대와 함께 찾았던 교육리그에서 얼굴에 공을 맞은 큰 부상을 당하면서 마무리 캠프 대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부상 여파로 1군 스프링 캠프에도 함께 하지 못했던 한승택은 선배들에 밀려 조용히 기회를 노려야

했다. 기다렸던 무대이지만 아직은 1군 무대를 즐길 여유가 없다. 투수들을 이끌어야 하는 '포수'라서 할 일이 산더미다.  
 한승택은 "경기를 앞두고 볼 배합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투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캠프에서 같이 했으면 파악하는 게 쉬웠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니까 매일 전력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수비에서는 일단 좋은 점수를 받았다.  
 타게시 배터리 코치는 "집착함이 눈에 띈다. 움직임과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다. 투수들이 좋아할 포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아직은 포구의 세밀함과 스로잉 등은 더 배우고, 채워야 한다는 게 타게시 코치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아쉽다.  
 타게시 코치는 "이흥구와 백용환은 장타를 가지고 있다. 포수가 타율이 떨어지더라도 장타를 때려주면 팀에 큰 전력인 된다"며 "이흥구와 한승택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두 선수의 기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다. 안 되려는 것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우는 쪽으로 지도를 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장점과 약점이 확실한, 상반된 두 포수의 안방 싸움.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가 말소됐던 백용환도 지난 3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적의 안방 조합 찾기가 KIA의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잘 못 던져... 던지지 못해 아쉽다"

**덕아웃 T 특특**  
 ▲나 대학 때 뭐하고 있었지? = 부쩍 어른스러워진 고영우다. 포수 한승택(22)과 '고졸 루키'인 이진영·최원준·정동현(이상 19), 전상현(20)이 1군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대졸 4년차 고영우(26)가 나를 고참 선수가 된 것이다. 고영우를 졸졸 쫓아다니던 야수 후배들. 이진영이 "선배가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저 정도였겠다"며 불보이로 나온 동성중 꼬마 선수를 가리켰다. "대학교 때 너희는 뭐하고 있었지?"라고 묻던 고영우는 "애들이 97년생이니까 7살 차이"라며 웃었다.  
 ▲공 숨겨놨 = 친구지만 라이벌인 이진영과 최원준이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은 지난 5월31일 나란히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다. 지난 2일에는 함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프로 데뷔 안타는 최원준이 먼저 장식했다. 2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톱타

자 역할을 맡은 최원준은 프로 첫 타석에서 류제국을 상대로 2루타를 때렸고, 김기태 감독이 직접 나서 최원준의 프로 첫 안타 공을 챙겨줬다. 첫 안타 공에 대한 질문에 "공 잘 챙겨줬다"고 수줍게 웃던 최원준. "내가 안타칠 때까지 숨겨둬"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던 이진영은 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피어밴드를 상대로 프로데뷔 안타를 때리면서 공을 챙길 수 있었다. 15 타석 만에 나온 안타다.  
 ▲볼이 스트라이크로 들렸겠지 =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한 막내 이진영이다. 지난 1일 LG 원정에서 이진영은 볼카운트를 착각해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볼이 들어왔지만 삼진으로 생각하고 덕아웃으로 향한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이진영은 다시 타석에서 서서 볼넷을 골라낸 뒤 도루에 성공하면서 실수를 만회했다. 이에 김 감독은 "신인이 얼마나 긴장했겠나. 심판이 불리고 외친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들어냈지"라며 아빠 미소를 지었다.

▲아쉬워요 = 못 던져서 아쉬운 이진영, 던지지 못해서 아쉬운 정용운이다. 두 좌완은 임시선발로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을 보냈다. 이진영은 3일 선발로 나와 4.2이닝 5피안타 3사사구 3실점을 기록했다. 4회까지 실점 없이 막았던 이진영은 5회 박동원과 임병욱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면서 흔들렸다. 이진영에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임병욱과의 승부. 보내기 버트를 시도한 상대에게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서 결국 안타를 허용, 무사 1·3루에 몰렸다. 이진영은 "버트 승부를 제대로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용운은 던지지 못한 게 아쉽다. 4일 선발로 준비를 했던 정용운은 이날 경기에서 우천 취소되면서 마운드에서 지내지 못했다. 5일 원래 순서대로 양현종이 등판하면서 선발 기회를 놓친 정용운은 "경기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가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경기에서 2회말 2점 홈런을 터뜨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즌 8호' 강정호 볼넷·1사사구 2타점... 팀 4연패 마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다.  
 강정호는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전날 홈런을 터뜨리고도 팀 패배에 아쉬움을 삼켰던 강정호는 이날 첫 타석부터 시원한 홈런을 신고했다.  
 0-1로 뒤진 2회말 무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강정호는 에인절스 선발 윌리스 차신스의 시속 138km 초구 컷 패스트볼을 때렸다. 강정호가 친 공은 PNC 파크 가장 깊은 곳까지 날아갔고, 좌중간 담을 훌쩍 넘어가 시즌 8호 홈런이 됐다.

강정호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을 쳤다. 작년 강정호가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한 건 8월 2일로, 올해는 2개월 가까이 페이스가 빠르다.  
 피츠버그는 3회초 2-2 동점을 허용했고, 강정호는 3회말 2사 3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갔고 5구를 친 게 빗맞아 내야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다. 강정호는 5회말 1사 후 이번 시즌 3번째 볼넷을 골랐지만, 후속타가 타지 않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7회말에는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향했다. 강정호는 8회말 2사 2루에서 올해 5번째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고 타격에 나섰다. 3타수 1안타 1홈런 2사사구 2타점을 기록한 강정호는 타율은 0.273(77타수 21안타)에 21타점이 됐다.  
 한편 피츠버그는 에인절스를 8-7로 꺾고 최근 4연패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 손연재 개인 최고점에도 4위...3위와 격차 커져



손연재가 4일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7차 월드컵 개인 종합 연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했다. <손연재 인스타그램 캡처>

**월드컵 4종목 합계 74.650점**  
 손연재(22·연세대)가 리듬체조 월드컵 대회 개인종합에서 또다시 자신의 최고점수를 경신했다. 그러나 순위는 4위에 머물며 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손연재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7차 월드컵 둘째날 공복에서 자신의 종목별 연기 최고점수인 18.750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리본에서 18.700점을 받았다. 첫날 후프에서 18.550점(4위), 볼에서 18.650점(5위)을 받았던 손연재는 4종목 합계 74.650점을 기록했다.  
 지난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던 6차 월드컵에서 세웠던 자신의 기존 개인종합 최고점수 74.200점보다 0.450점이나 높았던 것이다.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랴체바가 불참한 가운데 개인종합 1위는 76.550점을 받은 마르가리타 마린(이상 러시아)이었다. /연합뉴스

약 두 달 뒤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손연재와 동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점쳐지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2위는 알렌산드라 솔다토바(75.700점·러시아), 3위는 간나 리자트디노바(75.150점·우크라이나)였다.  
 손연재와 리자트디노바와의 점수 차는 소피아 월드컵 때 0.050점에서 0.500점으로 벌어졌다.  
 공복 1위는 솔다토바(19.150점), 2위는 마린(19.000점), 3위는 스타누타(18.850점)였고 리자트디노바(18.750점)는 손연재와 함께 공동 4위였다. 리본 1위는 마린(19.100점), 2위는 리자트디노바(18.750점), 4위는 벨리타나 스타누타(18.600점·벨라루스)였다.  
 손연재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나왔던 지난 4월 페사로 월드컵 개인종합에서도 개인 최고점수(73.900점)를 새로 썼지만 4위를 기록하며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류현진 캐치볼...전반기 복귀 불가

재활경기만 3주 소요...7월 중순께나 가능

길고 지루한 재활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캐치볼을 재개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MLB닷컴은 5일 "류현진이 최근 일주일 동안 90~100피트(약 27.5~30.5m) 거리에서 캐치볼을 했다"고 전하며 "복귀 일정을 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은 4차례 이상 재활 경기를 치러야 비키그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캐치볼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볼펜 피칭,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다.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치른다. 재활 경기를 4차례 치르는 데만 3주가 걸린다.  
 볼펜 피칭에 돌입할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볼펜 피칭을 시작하고서 재활 경기에 진입하는 것도 2주 정도는 소요한다.  
 류현진은 벨라야 7월 중순 이후에 비키그에 복귀할 수 있다. 7월 11일에 끝나는 전반기에는 류현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 3차례 등판하며 비키그 마운드 복귀를 눈앞에 뒀다. 류현진은 5월 31일, 6월 5일 트리플A에서 최종 점수를 마친 후 6월 10~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에서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깨에 통증을 느껴 5월 31일 예정된 마이너리그 트리플A 재활 경기 등판을 취소했다. 복귀 시계는 다시 느리게 돈다. 류현진은 이제 후반기 초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재개한다. /연합뉴스